

2022년 7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7.19. 15시	연합뉴스TV 12층 대회의실	7/10	3	-	10	○		

o 회의 참석자 명단

- ① 시청자위원 명단 : 박찬재 부위원장, 정의식 위원, 이현숙 위원
정경모 위원, 김희중 위원, 김세한 위원,
천경숙 위원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추승호 보도본부장, 이정내 시청자센터장, 한승호 심의실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10	-	-	-	10	-	10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10	-	-	10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자영업자들이 왜 거세게 반대하는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등 심층적이고 입체적인 분석 보도가 부족하여 시청자 입장에서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면서 이에 따른 보상은 없고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더 큰 반발만 가져올 뿐이며 12월에 시행되더라도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개선과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걸린 현실적인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적이고 다양한 취재를 통해 비중 있는 보도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박찬재부위원장)	<06. 22 "편의점이 일회용 컵 수거?"...점주들 '부글부글' > 리포트를 제작하여 오는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관련하여 문제들이 개선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보도가 이어질수 있게 하겠습니다. <22.6월 조치>	'22.6월
보도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 관련 보도에 대한 의견 >.보도를 할 때(특히 전문가 대담 시) 자료화면을 적절히 준비해서 시청자들이 이해하는 데에 매우 용이하게 되는 점이 좋았고, 큐브위성(4개)에 대한 화면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큐브위성은 경진대회를 통해 4개 대학(KAIST, 서울대, 연세대, 조선대)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심층내용을 취재해서 보도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큐브위성은 대학 중심으로 초기 개발을 해나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할수록 적은 비용의 초소형, 고성능화된 위성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전망이 밝기 때문입니다.(문해주위원)	연합뉴스TV스페셜 프로그램 제233회 "미래를 쏘아올려라!: 우주강국을 향한 꿈, 누리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스페셜로 다루었고 특히 큐브위성 부분도 취재하였고 시청자에게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22.6월 조치>	'22.6월
총 건수		2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06. 22 "편의점이 일회용 컵 수거?"...점주들 '부글부글' > 오는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관련, 정부가 반납 처에 편의점을 넣는 것을 고려하자 편의점 점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기존 적용 대상인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보도로 반발의 이유와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분석으로 시청자 입장에서 바로 쉽게 이해가 되었으며 반드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함을 느끼게 하는 보도로 매우 좋았습니다. 자칫 매장이 일회용 컵 쓰레기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프랜차이즈에 많이 사용되는 우유, 휘핑크림 등은 잘 닦이지 않기 때문에 세균의 번식 등 위생의 문제 등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언론에서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보도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박찬재부위원장)	보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실제 시행시점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짚어 보도할 계획입니다.	○		
보도	<06. 22 [경제읽기] DSR 규제 강화... 서민·실수요자는 대출 완화> 가계 부채의 급증을 막기 위해 정부가 7월부터 금융권 대출의 DSR 규제를 강화하고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요건은 완화와 우대를 확대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대출 규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책의 실효성 어떠한지에 관한 보도로 경제평론가의 차분하면서 세심한 설명과 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하여 알기 쉽게 풀어 보도하여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주제임에도 시청자의 입장에서 바로 이해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정책의 심층적인 분석과 시청자들이 쉽게	부동산 하락기에 들어서고 금리 상승으로 '하우스푸어' 등장 가능성이 큰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부동산과 관련 금융제도 변화와 사회적 영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짚어볼 예정입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이해할 수 있는 보도가 이어지길 바랍니다.(박찬재부위원장)				
보도	6/21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아데노바이러스와 노로바이러스가 많이 줄었다고 보도하였는데, 이들 바이러스가 어떤 것인지, 인체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정의식 위원)	아데노바이러스 감소 관련 단신에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소개가 부족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다만 형식상 40초 미만으로 꾸며야 하는 단신의 성격상 세부 소개가 어려웠고 두 바이러스 모두 7세 이하가 감염 다수를 차지하는 바이러스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장염, 고열 및 호흡기 증상의 원인으로 비교적 알려진 바이러스란 점을 고려했습니다. 단신으로는 부족한 점을 감안해 7월1일자로 이들 바이러스의 동향에 대해 다루는 리포트도 제작했습니다.	○		
보도	6/20 코웨이 정수기에서 니켈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하였는데, 이럴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상세한 부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니켈은 동전이나 자석, 귀금속류, 스테인리스, 가전제품 등을 만들 때 흔하게 쓰는 금속이다. 하지만 흔하게 쓴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니켈은 국제암연구소가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에 쌓이거나 노폐물을 거르는 신장에 쌓이면 폐암이나 신장암을 일으킨다. 실제 동물실험에서 니켈을 섭취시켰더니 신장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미국 뉴욕대 의대는 만성적으로 니켈에 노출됐을 때 폐암이나 심혈관질환, 신경관손상, 소아 발달장애, 고혈압 등을 일으킨다	정수기 니켈 검출 관련 기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분석 기사로, 제조회사의 소비자 대응 부실과 소비자보호 강화를 촉구한 법원의 판단을 전달한 기사였습니다. 니켈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시켰더라면 더욱 시청자 친화적인 기사였을 것입니다. 좀 더 세심하게 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고 보고하고 있다. 니켈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니켈을 쓰는 제조업체에서는 산업용 마스크 등으로 니켈 중독을 막고 있다.(정의식위원)				
보도	아동·청소년들, 온라인서 '잊힐 권리' 확대된다(7월11일)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지만 아동·청소년들의 권리와 관련된 기사라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 연령을 만 14살 미만에서 만 18살 미만까지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보면서 우려가 생겼습니다. 사각지대를 없애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고민에서 나온 정책이지만 아동·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의사결정 능력 등 섬세하게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라 이후 기회에 된다면 따로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내용이어서, 추후 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추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보도	장애인에 대한 예산, 지원체계 확대하여 추가비극 막아야. 두 드라마를 통해서 보는 장애인의 삶과 현실, 장애 가정 잇따른 비극...'24시간 지원 체계' 절실(2022-05-26), [뉴스메이커] 우영우 (2022-07-12), '니 얼굴' 정은혜 작가 "그림 그리며 시선강박 극복했어요" (2022-07-03) 최근 장애인을 돌보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보다 많은 예산지원과 시스템 정비 및 확실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체를 가꾸어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보도와 대안제시로 하루속히 구체적인 방안에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합니다. (정경모위원)	사회부에서는 지난달 23일 발달장애 문제와 관련해 3건의 특집기획 리포트를 제작해 방영했습니다. 또 김예림 기자는 스튜디오에 출연해 취재 후기와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발달장애 뿐만 아니라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겠습니다.	○		
보도	7.12일자 '금리뛰자 신용대출부터 위	금리가 계속 뛰고 은행들이 큰 이익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축.....은행들은 '생색내기' 기사에서는 치솟는 금리 영향으로 가계대출 중 6월 신용대출이 통계작성이래 최대폭으로 줄었다는 내용과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이자 장사 경고에 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별 효과는 없는 생색내기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음.앞으로 얼마나 더 금리가 오를지 알 수 없을 만큼 금융비용 부담이 커진 금융소비자를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도 사실임. 따라서 은행들의 생색내기 금리 인하 실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취재하고 당국의 구두 압박도 효과가 없었던 만큼 또 다른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반영한 후속 기사를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음. (김희중위원)	을 내고 있는데, 관치 논란이 있더라도 금리 인하 자체는 소비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며 구체적 대안없이 정부의 조치가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으로 황급히 마무리한 느낌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뉴스를 제작하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지금은 세계적으로 통화 긴축 탓에 금리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행들도 예금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 금리가 계속 오르니 비싸게 조달한 돈으로 실시한 대출의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 '경고'와 같은 관치금융을 통해 금리를 하향기조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아울러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돈이 너무 풀려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은행은 대출을 억제하고 금융소비자는 투자 등을 위한 무리한 대출을 자제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무리한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부담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칫 대출 자체가 부실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이자 상승은 경제안정화를 위해 어느 정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당국은 "이자를 내리라"는 명령조의 관치가 아니라 최근 발표해 저희도 보도한 것처럼, 예대금리차를 한데 모아 짧은 주기에 공시하고 대출시장 경쟁을 높이는 등의 조치를 통해 금리상승기에 편승해 시장금리 상승폭을 훨씬 웃도는 약탈적 금리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도	<[단독] 보험금 노리고 택시에만 '깡'...오토바이 주의보> 기사 취재기자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밀착해서 보도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추가 취재 눈에 띄어, 7월 10일자 <[단독] 보험금 노리고 택시에만 '꽂' '...오토바이 주의보> 기사는 택시기사들이 사고가 나도 여러 가지 이유로 현금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3개월 동안 똑같은 수법으로 8명의 택시기사 8명을 상대로 고의로 오토바이 사고를 낸 사건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고 볼만한 뉴스를 가장 먼저 보도했다는 점도 칭찬할 일이지만, 강남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택시회사 관계자나 금융감독원 관계자까지 추가 취재를 해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배경까지 보도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또 실제 이번에 보도된 피의자의 영상인지 모르겠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일부러 택시에 다가가 부딪치는 블랙박스 영상까지 구해 보도함으로써 생생한 현장감이 느껴졌습니다.(김세한위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도	이준석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 새벽에 신속한 대응 돋보여, 지난 7일 진행된 국민의힘 당 윤리위원회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었습니다.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 대표의 소명이나 회의 시간이 길어져 최종 결과가 자정을 넘겨 새벽에 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는 8일 새벽 2시 56분 첫 번째 속보 기사 <[속보] 與윤리위,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을 출고한 뒤, 새벽 3시 7분 <[현장연결] 與윤리위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 보도를 통해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발표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이후 새벽 3시 38분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에 '당원권 6개월 정지' 결정>이라는 후속 보도를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고 충실하게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與 윤리위, 새벽 5시 21분 <이준석에 '당원권 6개월 정지' 결정> 기사를, 또 새벽 5시 54분 <[녹취구성] 이준석,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품위 유지 의무 위반"> 기사를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보도전문 채널로서 연합뉴스TV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습니다. (김세한위원)				
보도	7월 11일 오후 3시, [이슈현장] 학교 앞에서 초등생 뒤편 굴착기 '민식이법' 적용 안 돼...이유는?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7월 7일 오후 4시경 굴착기가 어린이 두 명을 덮쳤고 이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내용을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방송을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엔 가중 처벌을 받지 않는 내용을 그래픽 처리를 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방송이 되었습니다. 앵커의 질문과 변호사의 답변으로 알기 구성하여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잘 표현한 것 같아 시청하는데 좋았습니다. (천경숙위원)	후한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픽이나 영상자료를 활용한 전문가 대담을 적극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